


보 도 자 료

	◆ 2024. 1. 2. (화) 배포	
	◆ 총 6쪽 (본문 2쪽, 첨부 4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미답지연구단장 ☎ 032-760-5467	
강민구 문화홍보실장 ☎ 032-770-8631		
김기태 문화홍보실 행정원 ☎ 032-770-8632		

대한민국, 남극내륙기지 후보지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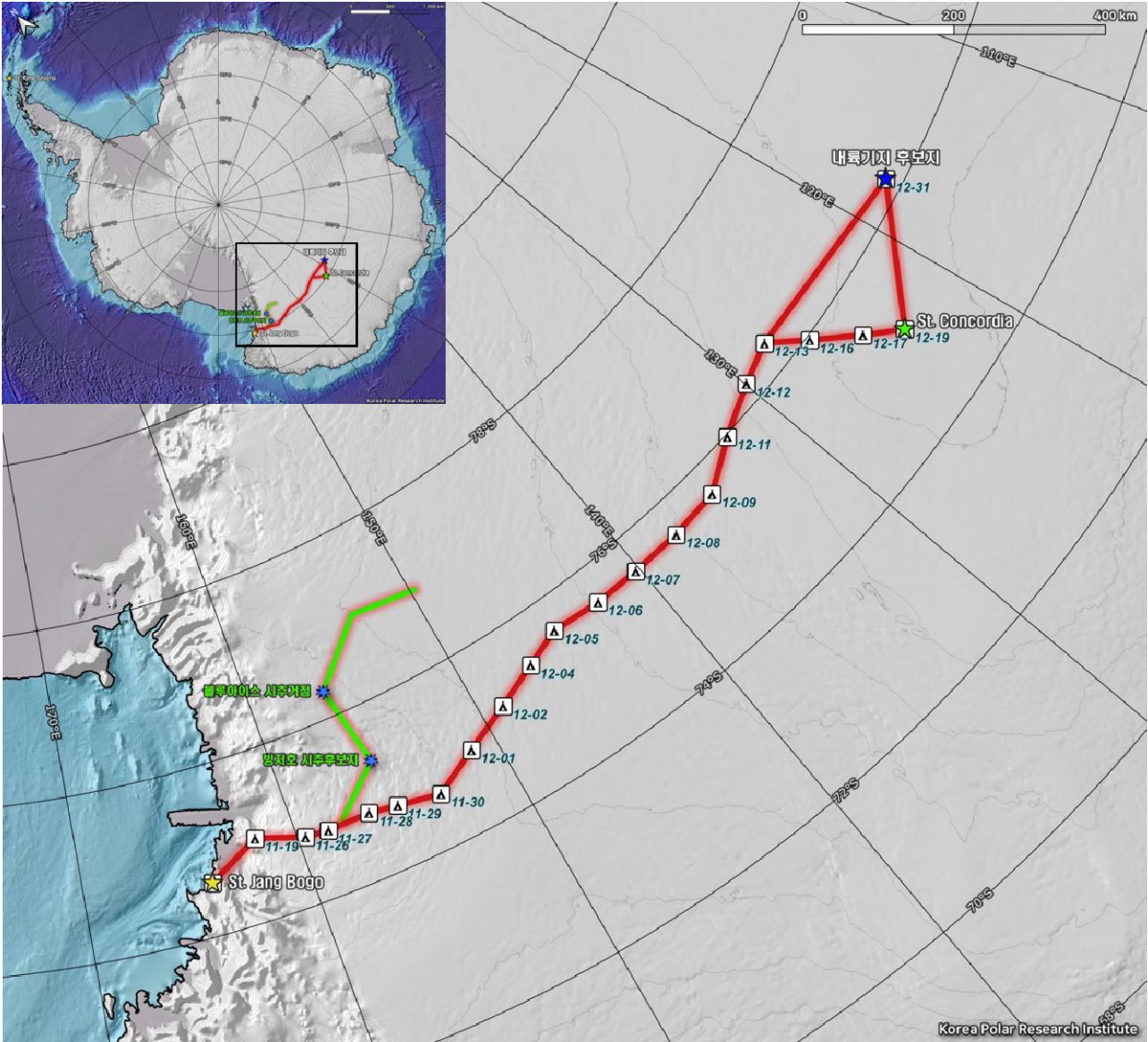
극지연, 독자적인 남극내륙 육상루트 K-루트 개척 성공... “연구거점 선점 추진”

- 극지연구소 (소장 신형철)는 K-루트 탐사대가 남극내륙기지 후보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K-루트는 대한민국이 남극 내륙에서 연구, 보급 활동 등을 위해 개척하는 육상루트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세계에서 6번째로 남극내륙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비행기로 물자를 보급할 경우 기상과 고비용 문제가 있어서 남극내륙기지를 건설, 운영하는 과정에 육상루트는 필수적이다.
- 극지연구소 K-루트 탐사대 (대장 전성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1일 12시 40분에 최종 목표지점인 남극내륙기지 후보지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출발한 지 46일 만이다.
- 남극내륙기지 후보지는 남위 76도 11분 동경 117도 36분에 위치하며, 250~300km 떨어진 곳에 프랑스-이태리가 공동 운영하는 콩코르디아 기지와 러시아 보스톡 기지가 있다. 이 지역의 빙하 두께는 최소 3,200m 이상이어서 100만 년 전 기후 복원이 가능하다.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주 등 극한지 탐사기술 연구 유망지로도 꼽힌다.

- 탐사대는 이번 탐사로 장보고기지와 남극내륙기지 후보지를 잇는 1,512km의 육상루트를 확보했다. 기지로 복귀하면서 270 km의 신규 루트를 추가 개척할 예정인데, 빙저호나 블루 아이스 등 다른 연구 목적으로 앞서 개척한 과학루트 433km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이 남극에서 확보한 육상 루트는 2,200km에 이를 전망이다. 장보고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직선거리는 1,710km이다.
- 남극은 평균 2km 두께의 얼음이 덮여 있는, 지구에서 평균 고도가 가장 높은 대륙으로, 빙하가 움직이면서 형성된 크레바스나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 때문에 대륙 안쪽으로 접근이 어렵다. 남극 내륙에 독자적인 루트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5개에 불과하다.
- 남극에서 새로운 기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K-루트 탐사대는 후보지에서 향후 기지 건설 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시료 채집, 기상관측장비 설치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K-루트 탐사는 극지연구소 미답지연구단이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남극 내륙 연구거점 구축과 기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빙원탐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탐사대는 활동을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장보고기지로 돌아올 예정이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이번 K-루트 개척으로 몇몇 선진국들만 가능했던 남극내륙 연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K-루트를 활용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연구 거점을 선점, 남극연구 선진국들과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붙임1. K루트 경로

붙임2. K루트 탐사대 활동 사진



2023년도 K-루트 남극내륙탐사 경로 (붉은색: 23/24 탐사경로, 연두색: 기존 과학루트)



사진1. K루트 탐사대, 남극내륙기지 후보지 도착(2023.12.31.) / 탐사대원: 왼쪽부터 한상우, 곽호제, 전재민, 정명혁, 류리나, 김강수, 이영호, 김홍귀, 김영진, 전성준



사진2. 남극내륙기지 후보지 경위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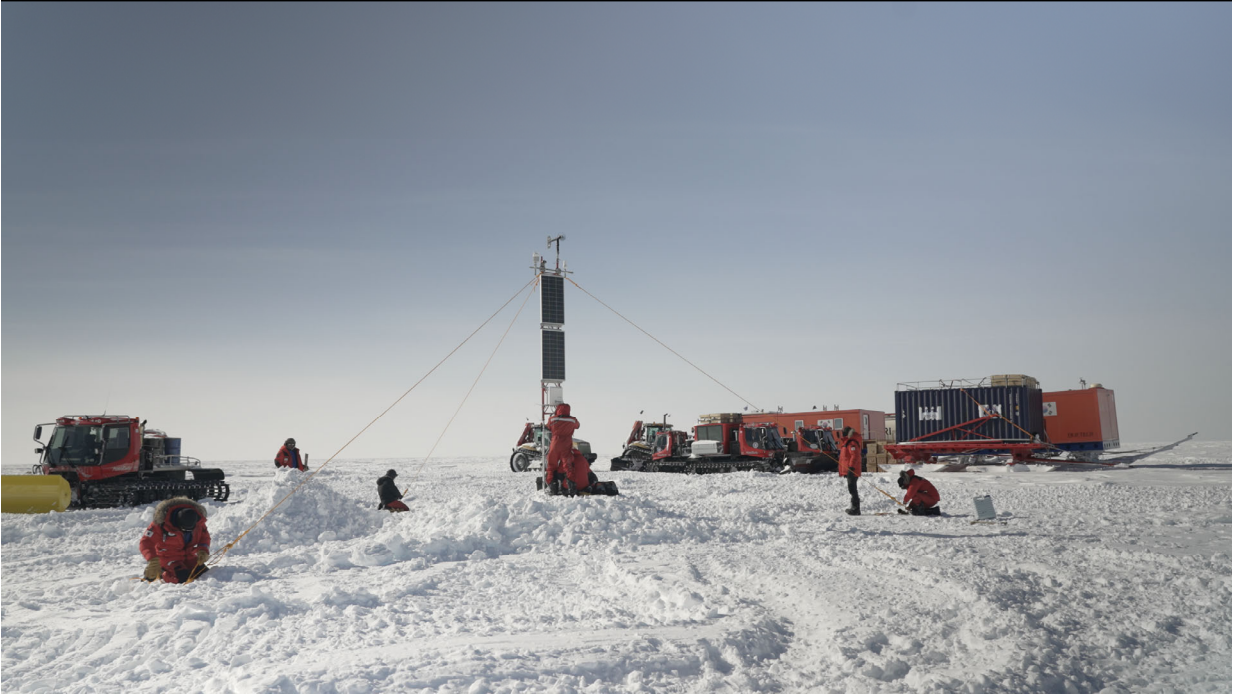


사진 3. 남극내륙기지 후보지 내 기상관측타워 설치



사진4. K-루트 탐사대, 장보고기지 출발 (202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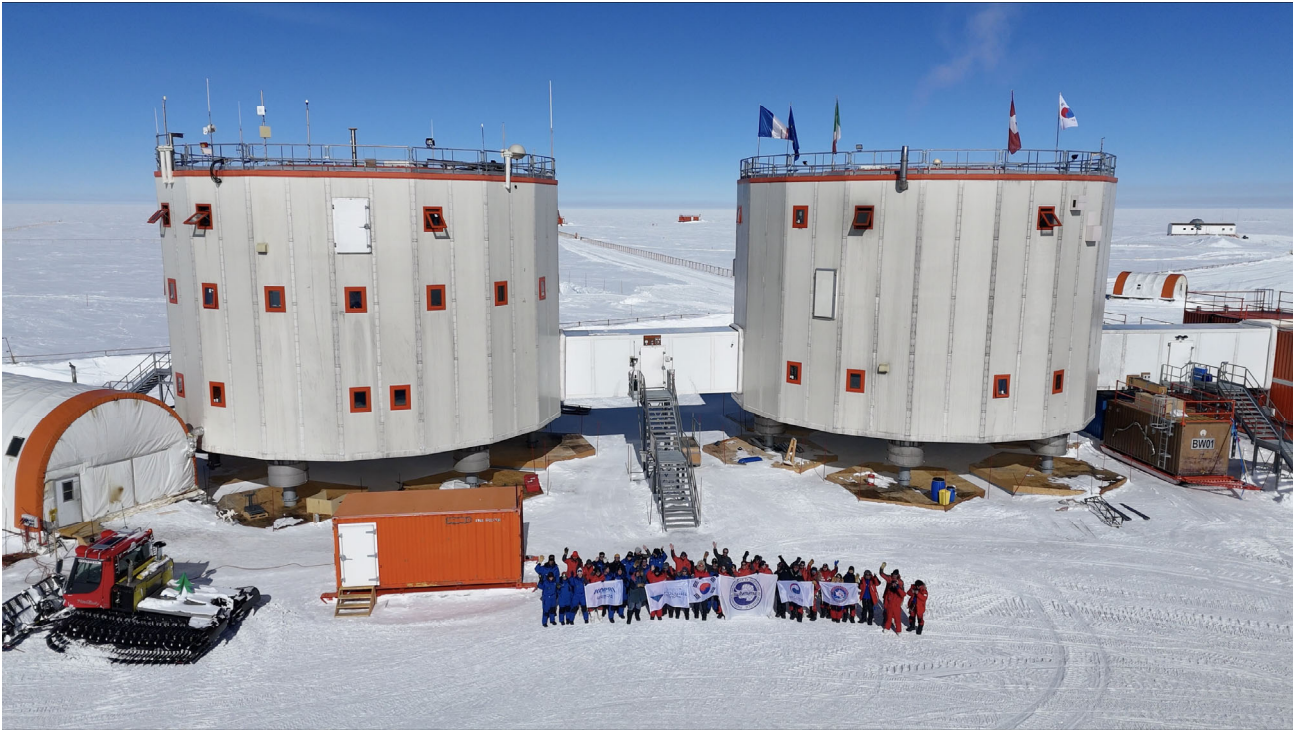


사진5. K-루트 탐사대 콩코르디아 기지 도착 (2023.12.19.)